

트럼프, 김정은과 직접 대화 검토... 北美 정상회담 '주목'

로이터 통신 보도, 회담 조기 추진 여부에 촉각

트럼프, 대선 때 친분 부각... "재집권 시 김정은과 잘 지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3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없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측은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팀 내부의 이런 논의는 유동적이며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초기 목표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정확한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왕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북

미 정상외교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양측 정상이 대화를 시작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더욱 대담한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며 대미 협상이나 관계 복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극히)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을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 시금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명태군 씨를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 사무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군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국민의힘 기초국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검찰,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명태군씨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 개입 의혹 수사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군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7일 서울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혐의 입증에 위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2022년 6·1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 다른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돈거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해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거래가 이번 사건 핵심 의혹인 '공천 개입'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인공지능·미래차 양 날개로 도약 꿈꾼다

광주시가 내년에는 인공지능과 미래차 산업을 양 날개로 지역경제 성장 규모를 더 키우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7일 시의회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광주는 대한민국 활력의 성장판을 여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 목표를 위해 사람을 키우고, 도시를 살리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광주의 전략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특히 "이제 GRDP로 수치화하는 양적 성장의 시대는 끝났으며, 대전환의 시대에 광주는 AI(인공지능)·미래차산업 등과 같은 미래 주도산업과 창업성장, 인재양성의 크기를 키우고, 광주가 지켜온 가치인 나눔과 연대, 민주주의, 문화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6069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6조9042억원)보다 10.2%(7027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 편성했던 예산을 회복한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내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6조 2641억원, 특별회계는 1조 3428억원이다. 또 일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921억원이고, 고금리 지방채 차환 규모는 1548억원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 투입을 통해 AI 집적단지 완공과 국가 데이터센터 서비스 플랫폼, 미래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EV 배터리 실증 기반 구축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역 성장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창업과 인재 양성, 일자리 정책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광주역 창업밸리 개소에 맞춰 혁신 창업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지원하고 AI영재고, 반도체 특성화 대학, AI대학원 등 인재 양성 사다리 구축을 위해 102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와 보금자리 예산에도 242억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과 공공배달업 디지털 전환 지원 예산, 12종의 정책자금 지원 등을 하고 광주상생카드 예산 196억원을 발행해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한다.

광주시는 내년을 민선 8기 대표 사업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대중교통 지원 및 자전거길과 보행로 등을 확대한다.

강 시장은 "자동차가 없어도 편리한 도시로의

강기정 시장 예산안 시정 연설 내년 예산 7조 6069억원 편성

전환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초등생 무료·정소년 반값 교통 정책인 '광주형 G-패스' 예산을 지원하고, 예산 169억원을 편성해 자전거길과 보행로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저출생 극복의 대표 정책인 초등 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1조 188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에는 인재가 없어 기업이 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AI영재고등학교, 반도체 특성화대학, AI대학원 등 유치원부터 전문교육기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인재양성 사다리 구축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시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프로그램
참여인원

5,951명

프로그램
운영시간

13,793시간

청년지원
정책연계

233명

전체 참여자
평균 만족도

4.7

2024년, 청년들과 함께 한 성과만큼
내일을 위한 꿈을 키우고 도약을 준비했습니다!

더 빛날 내일의 주인공, 스테이션 동명에서 START!

참여대상 15~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참여혜택 모든 프로그램 무료,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희망자)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기념품 증정

동명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운영시간 월~금 10:00~21:00, 토 10:00~18:00(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 2층

상무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10:00~13:00(프로그램별 상이)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9, 동양빌딩 9층

11 실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맞춤형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취업지원 및 필요지원 사업 연계

홈페이지

광주광역시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